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대연1동장학회는 지난 9일 관내 고등학교 8명에게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대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CGV 대연점에서 영화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대연4동 한국자유총연맹 대연4동분회는 지난 11월 28일 쌀, 김치, 라면 등 43만원 상당의 성품을 어려운 이웃 10세대에 전달했다.



대연5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저소득 어르신 100여명을 초대해 점심으로 갈비탕을 대접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연6동 청년회는 지난 1일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저소득 세대의 도배와 장판, LED 등 교체작업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용호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요장구교실은 지난 11월 29일 부산시 주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용호2동 용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월 800만원 상당의 쌀 10kg 260포를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전달했다.



용호3동 신일타원은 지난 2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불세트 6채를 전달했다.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선자 사무장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선자 사무장을 만나기로 한 어느 날, 약속장소인 대연6동 찜질도서관에 들어서자 하나도 둘도 아닌 네 분이 인사를 건넨다. 뜻밖의 풍경에 어리둥절해하자 이선자 사무장 지원사격을 위해 모인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멤버들이라며 소개를 한다. 백순종 위원장, 김순옥 위원, 정홍옥 전 위원장, 그리고 유난히 수줍은 미소를 띤 주인공 이선자 사무장까지.

착석하자마자 위원회 멤버들은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서로 이선자 사무장을 자랑 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우리 사무장님은 봉사를 위해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 “이렇게 열심히 봉사 활동 하는 분은 또 없을 거예요.”

1999년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입회 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통장

활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고도 13년을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이선자 사무장은 진정성 있는 봉사자로 다른 동네에서도 유명인사라고 한다. 봉사활동 강도가 강해 봉사자 선발 기준마저 까다로운 소화영아재활원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매월 꾸준히 봉사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여년 우유배달 경력을 바탕으로 동네 홀로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 또한 오랜 시간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에 특히 앞장서고 있다.

이어지는 칭찬릴레이에 어쩔 줄 몰라하던 이선자 사무장은 그 공을 모두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로 돌리며 화제를 전한했다.

“이게 다 우리 회원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얼마 전에는 비를

복지시설 소식

남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발표회 ‘위드락’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5일 제3회 프로그램 발표회 ‘위드락(with 樂)’을 개최했다. 복지관 이용자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만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0년 1월 성인·아동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난타, 요가, 댄스, 노래 등 성인 프로그램과 미술, 영어, 책, 스포츠, 음악 관련 아동 프로그램이 개설예정이다. 참여 및 문의 ☎634-3415

이웃돕기 소식

연탄배달로 따뜻하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는 지난 11월 18일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학교 및 관내 어려운 이웃 12세대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EBC부산해병전우회와 53사단 헌병



대는 지난 6일 40여명의 장병들과 함께 문현1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병들은 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부산연탄은행은 지난 21일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문현1동 에너지 빈곤세대에 연탄 2,800장과 라면 80박스, 김장김치 20박스, 치킨 16박스 등을 전달하며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를 전파했다.

○…(사)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연합회는 지난 23일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청년회원 및 동명대학교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 주민목 명예기자의 마을건강센터 제대로 알기

마을건강활동가로 2019년을 보내며

우암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긴지 3년이 지났다. 마을건강활동가로 지내며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바로 마을건강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정도면 양반이다. 마을건강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마을건강센터는 쉽게 말하면 ‘내 집 앞의 작은 보건소’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자면 주민 개개인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마을 전체가 건강해지도록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활동하는 거점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보건소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 건강 지표와 대조해 각 마을만의 건강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들간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 교육을 실시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강한 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게 되는데 마을건강센터에 상주하는 담당자와 간호사, 마을활동가들이 바로 주민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선자 사무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지원사격에 나선 백순종 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 김순옥 위원(왼쪽에서 두 번째), 정홍옥 전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줄딱 맞으면서도 동네 환경정비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모두들 봉사할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일까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의 관내 17개 동 위원회 중 우수 동으로 3년째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마저도

동에서 나아가 구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멤버들. 새해에는 신인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는 이들의 따뜻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로 후자는 나의 건강을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을건강센터 주민 조직의 건강을 위한 작은 활동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쌓이고 쌓이다보면 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부터 우암동 마을건강센터는 재개발 공사로 인해 소박마을로 이전하게 된다. 2021년에는 소박마을을 복원과 함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또 한번 더 이사를 갈 예정이다. 새로운 터전에서 좀 더 몸집을 키우게 될 우암동 마을건강센터는 앞으로도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에 쓰였으며, 장학금은 남구장학회에 전달돼 관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NH농협은행 대연동지점은 지난 17일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성품을 기탁해오고 있다.

○…부산구화학교는 지난 18일 남구에 장터 수익금 589,130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써달라며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1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비용 500만원을 전달해 나눔을 실천했다.

○…감만교회는 지난 4일 감만1동에 바



사회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라면 74박스를 기탁했다. 감만교회는 평소에도 주 1회 말반찬을 만들어 홀로어르신 세대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연건강차는 지난 22일 개원을 기념해 50만원 상당의 쌀 200kg을 기부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될 것을 밝혔다.

○…대연5동 문골회는 지난 5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20kg 5포와 10kg

28포를 전달하며 7년째 이웃돕기 및 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암동 태진회원은 지난 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태진회원은 2011년부터 매년 기부를 실천하며 따뜻한 우암동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대연교회는 지난 6일과 11일에 각



각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기매트 20개와 직접 담근 김장김치 60박스를 기탁했다.

○…감만동새마을금고는 지난 10일 감만2동에 5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품 중 100만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200만원은 한부모세대의 생계지원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는 에너지취약계층 15세대에 지원했다.

○…문현1동 인각사는 지난 12일 경로당 18개소에 120만원 상당의 쌀20kg 18포와 라면 18박스를 기탁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따뜻한 연말나기를 지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현4동분회는 지난 12일 연말을 맞아 관내 경로당 11개소를 방문해 쌀10kg 11포 및 두유 11박스를 전달했다.